

출장보고서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제153차 OECD 농업위원회 참석
2. 출장목적: OECD 농업위원회 의제 검토 및 대응
3. 출장지역: 프랑스 파리
4. 출장기간: 2009. 11. 23 ~ 28
5. 출 장 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초빙연구위원	배 종 하

6. 출장일정

일 정	주요 활동내역	비 고
11.23.	서울 출발, 파리 도착	
11.24~26.	농업위 참석	
11.27~28	파리 출발, 서울 도착	

7.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

소속기관	직 급	성 명	연 락 처
OECD 한국대표부	참사관	한동민	
OECD 농업무역국	과장	Carmel Cahill	

II. 주요 출장 결과

- OECD 농정작업반(APM)은 OECD의 핵심적 정책분석 도구인 PSE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면서, 각국의 농업정책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분야임.
-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의 PSE와 관련하여 쇠고기 관세차를 통해 이를 측정하기로 함으로서,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PSE 수준을 낮추는 데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됨. 이러한 노력이 국제기구를 통해 인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한국의 PSE 측정상 불합리한 부분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번 회의에 참석하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 분야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과 대외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을 정리·보고함.
 - i. 앞으로 OECD에서 진행되는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OECD의 논의가 지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하고 있는 국가를 볼 때, 이러한 논의가 앞으로 WTO 등 국제기구에서 핵심적인 의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DDA 등 향후 이루어질 국제규범설정 및 시장개방관련 협상에 대비한 사전 대응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봄.
 - ii. 이번 농정작업반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들은 금년 11월로 예정된 FAO 식량정상회담(WFS; World Food Summit)과 내년 2월로 예정된 OECD 농업장관회의와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양 회의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함. 특히 일본측 대표단은 우리 대표단과의 별도 만찬을 통해 양 회의에서 식량안보(food security)를 정식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측의 협조를 구함. 우리의 경우에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의제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이슈를 선점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경우, i) 최근의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적절한 의제라는 점, ii) 개념을 확장할 경우 경제·환경·사회적인 개념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 iii) 우리나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의제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iii. 의제를 선점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이번 논의에서도 향후 범세계적인 농업정책의 중요한 이슈가 될 의제들(바이오에너지, 비만, 개도국 농업정책 문제 등)이 많이 보고되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녹색성장, 식량자급율(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성 향상(R&D 문제) 등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대응하여 OECD의 의제화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새로운 정책이슈(비만, 영양공급 등)에 대응하여 국내의 정책을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음. 보다 적극적으로, OECD에 대해 국제/국내 공동용역을 발주하는 방

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정기적으로 사무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 전문가와 인적 network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 iv. OECD에서 논의되는 의제의 lifecycle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OECD 보고서는 사무국(Secretariat)을 중심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작성되며, 대개 guidance → discussion → decision의 과정을 거쳐 보고서로 채택됨.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고서는 해당 작업반을 통해 회원국의 검증을 받고 토론을 거쳐 수정되며, 작업반회의는 각국의 전문가들이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코멘트를 하는 ‘논의의 장’이라는 성격을 가짐. 따라서 의제로 제출된 보고서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판단하고 적절한 코멘트를 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함. 예를 들어 이번 농정작업반 회의의 경우 개도국 농업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 바, 우리나라의 사례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경우 정책수출의 사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v. 국내의 경우, 전문연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장기적·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전문 연구그룹의 육성이 절실함. 이번 쇠고기 PSE의 경우도 수년간의 연구와 교류를 통해 형성된 국제적 인맥이 우리나라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음. 또한 PSE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석의 tool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전문가집단이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필요시 OECD 사무국의 전문인력을 국내 정책관련 연구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vi. 이와 동시에 국내 농업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도 항상 OECD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OECD의 경우 정책비교가 대부분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정책과 국제규범과의 관계를 항상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OECD에서 논의된 농업정책의 추세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을 축소해야 한다는 기조 하에서 점차 농촌정책(regional policy)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도 이러한 추세를 적극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
- vii. 마지막으로 프랑스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지하는 바와 같

이 OECD는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프랑스는 유럽 제일의 농업 강국임. 따라서 농업정책에 있어서 OECD의 논의과정에 프랑스의 영향이 매우 강한 것이 현실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프랑스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됨.